

부모님  
이  
기대  
어  
이  
부모님

<ROCKSCAPE SUIT> 이승민 2017

부모님은 우리의 미래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 되기를  
말이야. 키도 크고, 외모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아서 주변의 사랑을 받기를.  
하지만 어른들은 우리와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어른이 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아버렸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자식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그래서  
자신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기대하는지도 모르지.

글\_김지연 이모는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재미있게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전시 기획자예요.



남들보다 나은 삶, 남들보다 못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일 뿐인데. 게다가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선택과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

이승민 이모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로키산맥 근처 덴버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 어느 날, 도로와 차길 사이, 대개 잔디가 깔리거나 나무가 있을 법한 공간을 메우고 있는 돌멩이를 발견했어. 별로 아름답지 않은, 갓난아기의 머리 크기만큼 큰 돌들이, 왜 길가에 깔려 있었을까? 이모는 땅 주인들이 노숙자를 막기 위해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큰 돌을 깔아놓았다는 사실을 알았어. 노숙자를 만나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돌을 깔아서 그들을 내쫓는 게 좋은 선택인 걸까?

노숙자가 되는 이유는 다양해. 건강을 잃어서, 직장에서 해고돼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족이 모두 헤어져서... 멀쩡한 몸으로 무슨 일이든 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게을러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나빠. 제대로 자고 먹지 못하는 생활은 금방 건강을 해치고, 정신도 쉽게 망가뜨리지. 그리고 노숙자를 위한 일자리는 거의 찾을 수 없어.



---

그들이라고 처음부터 노숙자가 되고 싶었을까? 일을 못 하고, 돈이 없고,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그들 중 누구도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은 경우는 없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걸까? 정말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남들처럼 살 수 없었던 걸까?

이승민 이모는 도시에서 노숙자를 쫓아내기 위해 깔아놓은 돌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고민했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들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내 눈앞에 안 보이면 그들의 존재가 정말 사라지는 건지 말이야.

이모는 종이를 들고 나가서, 돌멩이 모양을 그대로 본뒀어. 그리고 이 모양을 닮은 망토를 만들었지. 모델과 함께 패션쇼도 열었어. 이모는 이 망토가 슈퍼맨의 망토처럼 거리의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대. 이 망토를 입고 거리나 잔디밭에 눕는다면, 정말 돌멩이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칠지도 몰라. 노숙자는 감쪽같이 자신을 위장한 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지.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을 보면서, 이모는 이런 선택을 했어. 동무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어떤 생각을 할까? ㉔

---